

국제곡물 가격동향과 가격변동 요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따른 곡물 수요 증대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 수요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동향

2008년 급등했던 국제곡물가격은 2009년 들어 하락해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한 구소련 지역의 밀 생산 감소로 러시아가 수출금지조치를 취하면서 2010년 7월부터 밀 가격 급등을 시작으로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2008년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0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밀 선물가격은 2011년 1월 평균 톤당 295달러로 전년평균 가격대비 38.5% 상승했고 전년 6월 평균 가격대비 78.9% 높은 수준이었다. 밀 선물가격은 2010년 11월 감소세를 보이던 선물 투기가 다시 증가하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세계 및 수급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2011년 들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1월 평균 국제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50달러로 전년 6월 평균 가격대비 83.2%, 전년 평균대비 48.7% 상승했다. 2010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1년 1월 애그플레이션이 있었던 2008년 평균가격보다 20.5% 높은 수준이었다.

국제 대두 선물가격은 2010년 상반기 안정세를 보였으나 옥수수 선물가격과 함께 2010년 7월 이

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1년 1월 평균 대두 선물 가격은 톤당 511달러로 전년 평균대비 32.9%, 전년 6월 대비 46.7% 상승한 수준이다. 최근 대두 가격도 옥수수 가격과 마찬가지로 2008년 평균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가격 변동 요인

1) 2010/11년도 국제곡물 기말재고율 하락 전망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작황이 부진해 2010/1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2.4% 감소한 21억7천853만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소비량은 2.0% 증가한 22억4천69만톤으로 생산량을 초과하여 2010/11년도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1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0/11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2%¹⁾ 하락한 19.0%로 전망된다.

2)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국제유가는 해상운임의 변동요인으로 국내 곡물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제유가 상승은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2010년 상반기 세계 원유가격은 큰 폭의 상승없이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1월 평균 국제 유가는 배럴당 92.4달러로 2010년 10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2011년 세계 바이오에탄올 소비량은 1천9억ℓ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고 바이오디젤 소비량의 경우 228억ℓ로 전년보다 1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바이오연료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세계 곡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5년간 에탄올 연료용 옥수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6/07년 미국의 전체 옥수수 소비량 중 에탄올 연료용 비중은 23.3% 차지했으나 2010/11년에는 4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11년 에탄올 연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50억 부셸로 2006/07년대비 133.6% 증가할 전망이다.

3) 달러화 약세와 곡물투기 증가

달러화 약세는 투기 자본 곡물 시장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되어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연계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국제곡물 가격 급등시에도 달러화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0년 상반기 달러유로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7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년 7월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곡물 선물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편 곡물 수급이 전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선분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면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7월 이후 곡물 선물 투기가 확대되면서 9월까지 크게 증가했다. 10월 이후 밀, 옥수수 선물투기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12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대두 선물의 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월 1일 밀 선물 투기 순매수 포지션은 3만5천280계약을 기록했다.

2010년 7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 투기 순매수 포지션은 10월 이후 일

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2011년 2월 1일 기준, 49만8천177계약으로 2011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두 선물 투기 순매수포지션도 2010년 7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두 선물 투기 순매수포지션은 2011년 2월 1일 기준 21만8천809계약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중국과 인도의 곡물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는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육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닭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인당 소비량이 9.3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37.1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2010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2.3kg으로 200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실정이다.

중국과 인도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곡물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2010/11년도 중국의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은 각각 1억 880만톤, 1억6천200만톤, 6천885만톤으로 전망되어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료용 곡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최근 옥수수와 대두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세계 곡물 수요 증가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0/11년도 인도의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도 각각 전년보다 5.4%, 22.0%, 14.0% 증가한 8천244만톤, 1천830만톤, 965만톤으로 전망된다. 2010/11년 기준 세계 전체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 가운데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28.7%, 21.5%, 30.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